

시설 청소년의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최 나 야**

교 수 유 안 진

강 사 한 유 진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Choi, Na-Ya

Professor : Yoo, An-Jin

Lecturer : Han, Eu-Ge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perception of meaningful persons and to analyze the features of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9 middle school students of 3 child welfare facilities were observed and participated in depth-interviews.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adolescents' family image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before institutionalization. They want care-givers of institution to offer more emotional support to them. And they perceive much social support from other adolescents who're living with them. Bu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ir peer relationships have some limitations because of institutionalization itself and various restriction on their behaviors. Lastly, they want more intimate relationship with supporters in addition to financial sponsorship.

In conclusion,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related closely to the environmental properties. Therefore, concerns should be directed toward improving the qualit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institutions. And various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support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social development.

▲ 주요어(key words) : 시설 청소년(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s)

I. 문제제기

우리 나라의 가족은 지난 몇 십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 가족주의가 쇠퇴하면서 가족의 구조가 다양화 되고, 기능과 역할도 축소되었으며, 가치관 또한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가족의 해체도 증가하였고, 가족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보호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장인협, 1993).

아동양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기능이 중심이 되는 시설로,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해체, 빈곤, 부모의 유기 등에 의해 가정에서 양육이 불가능한 3세 이상-18세 미만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없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현재 우리 나라의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은 약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BK21 핵심분야 아동가족학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함

** 주저자 : 최나야 (E-mail : choinaya@hanmail.net)

1) 2000년 12월 31일 현재, 중학생 3,334명, 고등학생 3,626명(보건복지부, 2001)

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보건복지부, 2001)¹⁾.

그런데, 시설 청소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시설의 운영과 수용보호 실태에 관한 것이었고(박태영, 1991; 이명목, 1991; 이배근, 1993), 보호대상들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였다(김용석 외, 1995; 김현용, 1995).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시설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강복정·이정덕, 1999).

따라서, 시설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을 다룬 연구들은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기술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제기해왔다(장인협, 1988; Hutchinson, Tess, Gleckman, & Spence, 1992; Warger & Kleman, 1986).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역량의 결핍에만 집중하였을 뿐, 그 전후의 맥락인 구체적 대인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아동양육시설은 환경이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대조적인 일차적 미시환경이다(Bronfenbrenner, 1979). 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은 주로 대량 표본에 대한 1회의 조사에 바탕을 두었으나, 특수한 환경에 속하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타당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편성을 끌어내기 위해 명시적인 변수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환경에 적용시키기보다는 어떠한 변수가 환경상의 특수성을 가져오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요구된다. '생태학적 오류'란 군집의 다른 개체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개인의 속성을 무시한 채, 군집의 속성들을 변수화하고 그 변수들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론할 때 발생한다(조용환, 1999). 즉, 상대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자연적 맥락'을 떠나 일반화된 속성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의 맥락을 구성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교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의 집합인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Hinde, 1987, 1995).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몇몇 연구들은 시설 청소년의 가족상(강복정·이정덕, 1999),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사회적응과정(변미희, 1999) 등을 주제로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시설 청소년들이 포함된 사회적 환경 자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시설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명백한 경계를 갖는 대상이므로, 맥락 속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심층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장시간 탐구(Creswell, 1998)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시설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족해체를 경험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살고 있는 중학생들을 사례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대상 시설에 대한 참여관찰 내용과 비치 문서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시설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들

에게 중요한 타인이 누구이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밝혀내 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시설의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복지적 지원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시설 운영과 관련된 복지 행정을 위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부모와 떨어져 시설에서 자라는 영·유아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며(DeAngelis, 1997; Fisher, Ames, Chisholm, & Savoie, 1997), 시설 거주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성 결핍에서 회복되기 힘들다고 한다(Bronfenbrenner, 1979; Chisholm, 1998; DeAngelis, 1997; Hodges & Tizard, 1989; Morison & Ellwood, 2000). 시설 영·유아들의 사회성 결핍에 대해서는 양육 제공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핍을 원인으로 설명하는 사회적 자극 가설(Shaffer, 2000)과, 타인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계속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점차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는 학습된 무기력 가설(Finkelstein & Ramey, 1977)이 존재한다.

시설 청소년들은 영·유아기부터 수년을 시설에서 보낸 경우가 많으므로(유안진·민하영, 2000),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다. 시설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신뢰로운 경험의 박탈이라는 정서적 요인, 대규모 집단생활이라는 구조적 요인, 그리고 전문적 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부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양숙미, 1993).

시설 아동 및 청소년들의 입소 사유 중에서는 부모의 이혼과 유기가 가장 많아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설 입소 이후에도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 및 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변용찬·이상현, 1998). 따라서 시설 청소년이 가족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시설 청소년의 가족상에 대한 강복정과 이정덕(1999)의 사례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으로 슬픔과 무가치감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긍정적인 지각은 과거의 행복했던 경험에 대한 회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시설 청소년이 근원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투사검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시설 청소년의 지각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지각으로 그리움과 고마움이, 부정적 지각으로는 무책임에 대한 비난, 학대와 갈등의 야기에 대한 원망 등이 표현되었다(유안진·한유진·최나야, 2001).

시설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각은 자아정체감 중 신뢰성 영역의 발달과 관련된다(신혜령, 1993).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의 기대가 시설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Hutchinson et al., 1992). 따라서 시설 입소 이후에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모의 기대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시설 청소년의 적응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의 가장 큰 특성은 또래집단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친구들은 지지와 충고의 근원으로서 부모와 동등하거나 부모를 능가하는 존재로 인식된다(Adler & Furman, 1988; Buhrmester, 1996; Furman & Buhrmester, 1985, 1992). 청소년기 우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친밀함과 자기-노출의 강조이다(Buhrmester, <표1> 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1996). 아동기의 우정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친밀감이 보고되며(Furman & Buhrmester, 1985; Youniss & Smollar, 1985), 특히 친밀한 자기-노출은 청소년들간의 상호작용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형태이다(Parker & Gottman, 1989).

그런데, 시설 환경에서 오랫동안 성장한 청소년은 의타심, 반발심, 열등감 등이 강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 능력이 결여되기 쉽다(장인협, 1988; Warger & Kleman, 1986). 실제로, 시설 청소년들 스스로 또래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경험을 보고하기도 한다(Hutchinson et al., 1992). 이러한 결과는 시설 청소년들이 소속집단으로 인한 ‘낙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폐쇄적 태도를 취한다는 지적(박용택, 1994)과 관련될 수 있지만, 시설 청소년들의 또래관계 양상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발견되는 특성의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시설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부채를 보완해주기 위해 다른 대인관계가 이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가정생활의 모델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모와의 재결합 가능성이 없는 시설 청소년들을 위해서 형제자매 관계의 개선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강복정 · 이정덕, 1999).

또한 보육사가 자신을 이해한다고 지각하는 시설 청소년은 시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 보육사는 시설 청소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노혜련 · 장정순, 1998). 그러나, 보육사의 이직율이 40% 이상에 달하는 현실(김응석 외, 1995)을 통해 보육사와의 안정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예측된다.

그밖에, 시설 청소년들이 지각한 시설 내 다른 청소년들에 대한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노혜련 · 장정순, 1998). 빈도로 파악할 수 있는 양상 이상의 구체적 상호작용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가정과 아동양육시설간의 차이는 미시체계(microsystem)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체계(mesosystem)와 외체계

(exosystem)면에서도 존재한다고 한다(Bronfenbrenner, 1979).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시설은 가정에 비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더 고립적이어서, 수용자가 다른 환경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적고, 시설의 종사자들도 외부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기가 더 어려우며, 문화적 가치와 기대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낙인으로 인해 실패에 대한 자기충족적 예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외부 환경과의 개방적인 교류를 통해 시설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는 아동양육시설이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사회복지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변용찬 · 이상영 · 이상현, 1996).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대상의 선정 및 일반적 특성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연합회에 소속된 아동양육시설 중, 부모와 역사 면에서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세 곳을 선택하였다. 시설장 및 보육사와 협의하여 가족해체를 겪고 입소한 중학생들 중, 학년과 성별의 분포를 고려하여 시설 당 4명씩, 총 12명을 선정하였다. 즉, 이 연구의 체보자 선정은 질적 사례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도적·판단적 표집방법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집단면접을 포함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좋은 체보자’²⁾로 판단되는 9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은 시설 거주 기간이 8년 이상으로 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경우(2명)와, 정보를 공개하기 꺼려 심층면접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1명)였다. <표 1>을 비롯하여 이 연구에 제시된 모든 이름은 가명이다.

2. 대상 시설의 특성

A, B, C 세 시설은 연구자가 약 1년 전에 1-2회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었다. 각각 설립된 지 51년, 43년, 42년 되었고, 보육사 대 아동 비율은 각각 1 : 11.5, 1 : 11.4, 1 : 12 로 조사되었다. A시설은 편리한 공간 배치와 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설비 마련 등의 질 높은 물리적 환경과, 보육사 이외의 상담교사팀 운영이 돋보였다. 그리고 B시설은 자원봉사자나 외부 기관과 연결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2) ‘좋은 체보자’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사상이나 의견, 감정 등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며, 솔직하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최영신, 1999).

번호	시설	이름 (가명)	성별	학년	입소시 연령	시설 거주기간	입소 사유 및 과정	부모 생존 여부	부모 연락 여부	형제자매 관계
1	A	하민석	남	중2	만11세	2년 4개월	부모 이혼, 부가 양육하였으나 경제적·정서적으로 방임하게되어 시설보호 요청	부 : 생존 (목수) 모 : 생존	부 : 연락 (월2회 귀가) 모 : 2년 전 만남	남동생 : 4학년 (동거)
2		정성훈	남	중3	만12세	2년 5개월	부모 이혼, 부가 양육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실직, 생활보호대상자)으로 일시적 시설보호 위탁, 2년후 입소조치됨	부 : 생존 (버스기사) 모 : 생존	부 : 연락 (월1회 귀가) 모 : 1년 전 만남	누나 : 고2 (동거)
3		이미란	여	중3	만9세	4년 11개월	부모 이혼, 부 자살, 모는 전세금을 갖고 행방불명됨. 고모, 큰아버지가 각각 남매를 맡았으나, 빈곤으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교회 거쳐 현 시설에서 일시보호후 입소조치	부 : 사망 모 : 행방불명	없음	남동생 : 중1 (동거)
4	B	조은희	여	중2	만10세	4년 2개월	모 사망후 부가 양육하다 빚을 지고 일본에 불법취업. 큰아버지와 고모가 양육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설보호 요청	부 : 생존 (일본 거주) 모 : 사망	부 : 오빠와만 연락	오빠 : 만20세 (동일시설 퇴소후 고모집 거주)
5		지은희	여	중2	만5세	8년 10개월	모 가출, 부가 양육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결핵)으로 인해 시설 수용 의뢰	부 : 생존 (요양중) 모 : 행방불명	없음	없음
6		유지현	여	중3	만11세	3년 8개월	부의 외도로 부모 이혼, 처음엔 모, 나중엔 부·계모가 양육. 부 가출 후 남매들끼리 살다 몸이 아파 모에게 갔으나, 양육할 수 없다고 하여 상경. 조모, 고모도 양육 거부, 경찰서와 아동상담소(6개월) 거쳐 입소	부 : 행방불명 모 : 생존	없음	여동생 : 중1 (동거) 남동생 : 5학년 (동거)
7	C	한지혜	여	중1	만11세	1년 3개월	부가 알콜중독과 간경화로 사망, 생활보호대상자인 모는 극심한 빈곤에 질병 겹쳐 양육 불능, 친척들도 모두 가난하여 외면하자 시설에 위탁	부 : 사망 모 : 생존 (파출부)	모 : 연락 (월1,2회귀가)	남동생 : 만5세 (동거)
8		이수형	남	중1	만11세	12개월	부가 사업 실패로 가출하고 모가 한시적 자활보호를 받으며 식당 일로 생활 유지, 결국 이혼, 생활이 힘든 모는 딸만 키우고, 수형은 부와 계모가 키우다 시설에 맡김	부 : 생존 모 : 생존 (전화교환원)	모 : 최근 연락	여동생 : 5학년 (모가 양육)
9		우진혁	남	중1	만12세	6개월	부는 소방공무원이었는데, 모가 장사에 실패하자 불화로 이혼, 모는 일본에서 재혼, 빚 갚기에 급급했던 부는 재혼에도 실패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시골에서 요양. 고모도 양육을 거부하여 시설 입소	부 : 생존 (요양중) 모 : 생존 (일본 거주)	없음	없음

세 시설 모두 성별에 따라 혼합 연령 기숙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각 호마다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담당 보육사와 함께 살고 있었다. A, B시설은 각 호가 일반 주거 형태로 구성되어 어느 정도의 개별적 일과 운영³⁾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C시설은 숙사 전체가 개방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각 방에 9-11명까지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가구나 이불 등의 생

활 비품도 상당히 낡은 상태인 것으로 관찰되어, 물리적 환경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자료 수집 과정

각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를 허가받았으며, 운영 실무자와 구체적인 연구 방법, 시간, 장소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1년 2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7주간 연구자가 각 시설을 5-6 회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서를 활용하고, 집단 활동 및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관찰도 병행하였다.

1-2차 방문은 라포 형성을 위한 단계로 삼았다. 대상 중학생

3) 아동양육시설 생활공간의 구성 형태는 일반 가정의 환경에 가까운 소수사형이 바람직하나(권재웅·김종영, 1999; 노혜련·장정순, 1998), 현재 우리 나라 시설에서는 취침, 공부, 놀이 등의 기본적 활동이 방, 거실에서 단위 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활동은 시설 전체가 공유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권재웅·김종영, 1999).

들에게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집단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 연구대상간 및 연구자와의 친밀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선정된 중학생들은 성별과 학년이 섞여 있었지만, 수개월부터 수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동거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차 방문시에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시설별로 4명의 면접대상과 함께 시설에서의 일과, 학교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과에 대해서는 각자 그림과 표로 나타내도록 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집단 면접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집단 내의 역동과 상호작용이 관찰되었으며(조용환, 1999; Berg, 2001),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 정보의 부각과 노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Berg, 2001; Stewart & Shamdasani, 1990) 점에서 집단토의 연구(focus group interview)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4-6차 방문을 통해 각 청소년 당 1회 약 30-40분씩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질문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실제 면접시에는 목록 내용에 치중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였다. 개별 면접을 통해 집단면접에서는 할 수 없었던 심도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면접에 대한 적극성, 발화의 양 및 이야기의 유기성에 있어서 대상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과 함께 가족과의 연계 여부를 고려하여 총 12명에서 9명으로 사례를 축소하였다.

IV. 연구 결과 분석

면접과정에서 녹취 및 기록한 내용과 그 밖의 자료들을 토대로 아홉 명의 시설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끌어내었다. 시설 청소년들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이 시설 안팎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특수한 거주공간인 시설이 갖는 의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우선, 대상 청소년 모두에게는 과거에 한 가정에서 경험을 공유했던 근원적 가족이 존재한다. 가족해체로 시설에 입소한 후에도 가족에 대한 이미지는 변화를 거치며 남아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의 울타리를 통해 가족들과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이들은 가족과 헤어진 후, 대규모의 대체적 가정인 시설 내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인 관계 또한 시설 거주와 무관하지 않은 특징을 갖게 된다.

1. 시설 입소 전후의 경험과 가족에 대한 지각

시설 청소년이 가족과 형성하는 관계는 거주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입소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족해체를

겪고 시설에 입소한 대상 청소년 9명의 입소 사유는 상당히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며,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그런데, 시설 입소 전의 가정 환경과 입소 후 부모와의 관계 특성에 따라 부모에 대한 지각 내용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친척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내용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각 청소년이 시설 입소 전후에 경험한 내용에 따라 가족상이 어떠한지 분석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신상기록은 대상 청소년이 가족에 대해 스스로 기술한 내용과 비교하여 틀리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시설에서 각 청소년의 가정 배경과 입소 과정을 정확히 파악 하고있지 못함을 증명해준다.

1) 가족해체 경험에 기인하는 부정적 부모상

몇 명의 시설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적대감을 표현했다. 가족해체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거나, 시설 입소 이후에 연락을 하지 않는 등 관계가 부정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상을 형성하고 있었다.

미란(여, 중3)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헤어진 후 자살을 하였다. 미란이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친척들에게 남동생과 자신을 맡기고 전세금을 빼서 정부와 행방불명된 어머니에 대해서는 증오심을 나타내었다.

미란 : 언니 역궁은 몰라요. 아빠가 언니 증명사진 보여줬었는데, 흐릿해요. 아빠는 보고싶은데요, 언니는 보고싶지 않아요. 미워요.

은효(여, 중2)는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요양치료로 시설에 수용된 경우이다. 아버지는 시설에 가끔 찾아왔으나, 연락이 끊긴지 몇 년 되었다. 은효는 자신이 매우 어렸을 때 일어난 부모간 갈등을, 가출을 한 어머니에게 귀인하였으며, 비록 지금은 연락을 끊었지만 어릴 때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움과 미움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으며,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은효 : 아빠가 저 일고여덟 살 때 많이 오셨어요. 3학년 쯤 되니까 어디 사는 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되고... 언니는 처음부터 연락 없었어요. 기억나기로는요, 아빠는 그래도 쯤 괜찮았는데, 언니는 별로였어요. 아빠한테 왜 돈 안 벌어요냐고 투정부리고.. 아빠도 여기 전 있고, 안경 쓰셨구요, 키도 쯤 작아요. 전 아빠 닮았어요. 언니는 너무 커요. (중략) 아빠가 나중에 데리러 온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베베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밤 혼자서요 다른 사람 다 잘 때 울었어요. 그 때부터 아빠가 미워졌어요. 거짓말을 해서요... 지금이러도 아빠가

부자가 돼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싫어요.

지현(여, 중3)이는 가장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입소한 사례이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부모가 이혼했는데, 그 때부터 지현이 남매들의 불안정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살림이 어렵자 아이들을 아버지와 계모에게 보냈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도 가출을 하고 말았다. 소녀가장 역할을 하던 지현이는 몸이 아파져서 지방의 어머니에게로 가고, 동생들은 할머니가 보살폈다. 이후에 3남매는 서로 양육을 거부하는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를 수 차례 오가다 결국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경찰서를 찾아갔고, 아동상담소를 거쳐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지현이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외도를 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어머니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을 키우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어도 부모간에 서로 돕고, 가족끼리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좋은 기억'이 가족해체의 결과와 대비되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현 :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 더 원망스러운 게 있죠. 그리고 아빠가 하는 짝 게 일순간이었으면 그래도 조용히 지나갔을 텐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구. 솔직히 저도 짝 애들 부럽잖아요. 언니랑 친구처럼 지내는 애들 진짜 부럽구. 근데, 솔직히요 다시 만나고 싶진 않아요. 괜히 더 슬퍼지구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잊어가면서 잘 살았잖아요. 만나면 더 혼났스러워질 것 같애요. 동생들하고 잘 살고 싶어요.

수형(남, 중1)이의 부모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이혼하였다. 생활이 힘든 어머니는 수형이의 여동생만 키우고, 수형이는 아버지와 계모가 키우다 시설에 맡겼다. 시설 근처에 아버지의 집이 있으나 가기 싫다고 하며, 어머니와는 최근에야 연락이 되어 한 두 번 만난 상태였다. 수형이는 아버지가 계모와 살면서 자신을 시설에 입소시키고, 친어머니에게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수형 : 이혼을 해가지고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리고 새엄마가요 나 안 키워서 아빠가 날 보육원에 보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친엄마가 못된 걸로 생각했었는데요. 언니는 내가 보육원에 갓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 맨날 찾고 다시 데려갈려고 그러는데, 아빠가 싸인을 안 해줘요. 새엄마가 있기 근처에 사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거기 일하는 사장이 세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못 키운다는 게 많이 안티죠.

은희(여, 중2)의 어머니는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버지가 남매를 양육하다가 빚을 지고 일본에 가서 불법 취업한 상태이다. 은희의 오빠는 얼마 전 20세가 되어 B시설에서 퇴소하고 고모 집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는데, 일본에 있는 아버지와 연락을 유

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은희는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모에 대해서도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자신과 오빠를 돌보지 않으며 혼자 일본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이미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서 어머니와 늘 싸웠던 부정적 기억이 남아있다.

은희 :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그냥 식당 일하는 것만 같아요. 일본에 별로 가보고 싶진 않아요. (중략) 아빠 잘 티면요? 별로요, 차라니 저 혼자 살고 싶어요. 짜증날 때는요 여기에 이려고 사는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쪽(아빠) 사정도 안 좋으니까 가봤자 나한테도 옹호는 것도 없으니까. 저는 가족들에 대해서 진짜 가깝가다 이런 생각도 해요. 가족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아니라고...

진혁이(남, 중1)의 부모는 어머니의 장사 실패로 불화가 일어나 이혼하였다. 어머니는 일본에 가서 재혼하였고,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빚을 갚아야했다. 재혼에도 실패한 아버지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지방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다. 진혁이는 일본에 간 어머니가 재혼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원망한다. 그리고 과거에 능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신적 질환으로 요양중인 아버지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혁 : 2학년 때였해도요, 언니가요, 중학생 티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지금은 언니가 떠워요. (중략) 아버지는 능력은 있으셨어요. 소방대원이셨거든요. 아빠 기승있는 게 본받고 싶어요.

2) 입소후 부모와의 지속적 연계와 긍정적 부모상

반면에, 시설 입소 이후에도 왕래 및 연락을 취하면서 지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발견되었다. 부모가 자신을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서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는 경우에는 원망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한다. 또한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부모는 이들에게 가정으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기다림'의 대상이 된다.

민석이와 성훈이는 아버지와, 지혜는 어머니와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가끔씩 집에 가서 자고 온다. 이들은 편부 또는 편모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부모가 하고 있는 일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훈이(남, 중3)는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해 입

소하였다. 어머니와 1년 전에 만나보았지만 친밀함보다는 서먹 서먹한 부분이 많은 관계이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사는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지내다 온다. 힘들게 일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성훈이는 아버지의 안위를 늘 걱정한다. 철없는 누나가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자신은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누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성훈 : 버스 운전하세요. 운전은 다 해봤어요. 택시, 오토바이, 트럭, 봉고차... 다 타봤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두 번 큰 사고 나가지고, 버스가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냥 자상하시구요, 잘 해주세요. 그리고 돈에 너무 집착... 그래서요 저희한테 돈을 막 씌려고 해요. 아빤 우리한테 무조건 잘 해죽라고 그래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아빠가 린드셔서 여기 오게 된 거 처음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다 돼요. 원망스럽거나 그러진 않구요. 아빠랑 맞을 많이 해요. 잘 들어주세요. (중략) 아빤한테 바라는건, 건강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밖에 없어요. 빨리 돈을 많이 버셔가지구 찾으러 오시는 것도 좋 바라고요.

민석(남, 중2)의 경우도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의 양육을 받다가 시설에 오게 되었다. 아버지가 일 때문에 아이들을 자주 방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면접 당시, 어머니와 만난 지는 2년이 넘었고, 아버지와는 집에서 한 달에 한 두 번 만나고 있었다. 부모가 헤어지기 전 '사이가 좋아 가족끼리 많이 놀러갔었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민석에게 아버지는 물질적 원조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대상임이 확인된다.

민석 : 아빤은 우릴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아요. 아빤 많이 해줘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마음으로는... 부모님 없는 애들에 비해서 좀 든든한 게 있죠. 공부 많이 하라고, 동생 잘 돌보라고... 우릴 좋아한다는 표현은 전혀 못 해요. 그냥 제가 큰 아들이니까 저만 믿는다고... (중략) 아빤이 바깥이예요. 설계하고 그런거 있죠? 많이 린드신 것 같아요. 아빤 손기술이 좋아요. 신도시 아파트 만드는 데 많이 가요. 할 일 없을 때요, 아빤이 지은 아파트 많이 보러가요.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중략) 바라는 거요? 별로 없어요.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지혜(여, 중1)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게 생활하던 어머니에게도 질병이 생겨 시설에 오게 되었다. 지혜는 한 달에 한 두 번 집에 가서 주말을 보내고 온다. 역시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기다림의 자세가 나타난다.

지혜 : 언마가 다섯 달만 있으라고 했는데, 벌써 1년 넘었어요. 돈 벌기 너무 힘들다고요, 여기요 잠시만 있으래요. 돈 벌면 데구 갔다구. 연락 맨날 맨날 해요. 언마가 전화하라고 용돈도 주구요, 전화카드도 줘요. 착한 분이예요... 언마가 여기에 딸긴 거 이해가 돼요. (중략) 바라는 건, 돈 많이 벌어서요 부자 돼가지구 데려가는 거 하구요, 자주 오는 거...

3) 친척들과의 갈등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또한 가족 해체 후 시설 입소 과정에서 친척들과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에는 친척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다. 미란이, 은희, 그리고 지현이는 큰아버지, 고모, 또는 할머니 등의 친척이 일정 기간 양육을 담당하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고 하여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세 명 모두 형제자매와 헤어져 친척 집에 살았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서로 양육을 거부하는 친척간의 갈등, 그리고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였다.

면접 결과에 따르면, 미란이와 은희는 친척들과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접촉도 회피하고 싶어한다. 지현이도 자신들의 양육을 거부하고, 이제 와서 가끔씩 관심을 보이는 친척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미란 : 동생은요 고모랑 큰 언마랑 계속 연락하는데,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고모가 미운데 가깝 그냥 생각은 나요. 친척들한테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지현 : 친척들이 잘 해주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게, 솔직히 그 때는 우리 떠난기고 그랬으면서 우리 여기 이제 막 익숙해지고 살랴한테 타가지구서 막 그러는게 짜증 나요.

은희 : 저는요 결혼 안 하구요, 입양 할 거예요. 결혼은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스무살 되면 그 때까지 돈 벌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버려야지... 언마쪽 이모들 이기에 딱 사냥은 아빤나 고모들하고는 연락 안 하구요.

2. 시설 안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의 특성

1) 대체가족에 대한 기대 또는 만족

시설에서 함께 지내는 보육사나 또래들은 결핍된 가족과의 관계를 보상해줄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들과의 친화적 관계에 대한 만족은 시설 생활의 장점 중 하나로 제기되었다.

A시설의 아이들은 보육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B, C시설에서는 주로 '이모'라고 부른다. '우리 집(방) 이모'와 '다른 집

(방) 이모'의 대비는 보육사가 시설 청소년 자신이 속한 주거 공간의 고유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호칭은 가족관계에 비유될 만큼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이 잘 해주세요(성훈, 진혁, 은희)'라고 말하면서 보육사로부터의 수혜적 측면에 만족을 표현했다. 그런데, 시설 청소년들은 자신들과의 관계에서 보육사가 담당하는 역할이 정서적인 성격보다 도구적 성격을 더 많이 지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다시 말해, 보육사가 일반 가정의 가사에 해당하는 일을 맡아 주거나, 자신의 일과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주로 부각시켰다.

따라서, 반대로 그러한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면 큰 불만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설 청소년과 보육사와의 관계가 양방향적이지 않으며, 일방적인 기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사의 역할에 만족하더라도 '고마움'을 표현한 청소년은 아무도 없었고, 자신들을 잘 보살펴주는 임무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석 : 갱자기 아프거나, 준비물이 필요한 거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들이 다 해결해주세요.

수형 : 빨래같은 것도 진혁이네 방은요, 진짜 쳐져해요. 청소도 다 하구. 우리 방 이모는 아무 것도 안해서 맨날 우리가 다 해요. 진짜 싫어요.

또한 시설 청소년들은 보육사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바라고 있다. 가족체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게된 이들은 가장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로부터 방임과 유기, 무책임에 상처 입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설에 온 이후에도 또다시 경험하게 된 보육사들의 잦은 이직에 실망감을 느끼는 이들은 자신들을 보살피며 함께 사는 것이 자원봉사와 같은 '환상'이 아님을 경고한다.

지현 : (보육사가) 계속 바뀌어요. 격혼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친 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구요. 전에 어떤 이모는 하루 있다 갔잖아요. 딱 하루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애들 딱 다 웃고 날리 냐잖아요. 아휴... 그걸 거면 뭐하러 타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며칠 못 버티고 그냥 가요. 꼬맹이들은 진짜 언마인 죽 앓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언마인 죽 앓다니깐요.

한편 이들은 시설 내에서 같이 사는 아이들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여아들이 손위의 언니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비록 한 시설의 남아들은 형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지만, 전반적으로 손위의 동거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토로하고,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지닌 채 시설에 들어와 일과를 공유하며 사는 청소년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현 :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서로 마찰만 없으면 되게 편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이런 곳은 딱 되게 무섭고 그걸 죽 앓았는데, 솔직히 타보니까 진짜 좋거든요. 방마다 나이가 거의 다 꼭고루 섞여 있어요. 진짜 가족같아요.

은희 : 친구들을 많이 사귀 수 있고, 언니들이랑도 많이 사귀 수 있고, 그런 거만 좋아요. 고민 있거나 그러면 저희 집 언니들이 그 상황에 맞게 짚음 해주죠.

지혜 : 신신하지 않아요. 학교도 혼자 안 가고. 지금요, 내가 언마네 집에 살았으면요 나 혼자 학교 다녔을 거예요.

성훈 : 녹 때나 서로 친들어 할 때 (함께 사는 아이들이) 가족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2) 집단생활로 인한 갈등

집단생활에 대한 시설청소년들의 부정적 인식을 통해 시설 내의 대인관계가 갖는 특징을 탐색해볼 수 있다. 우선, 시설 내의 성인들은 자신들에게 규범의 준수를 강요하고, 때로는 폭력적 행위를 가하거나 따뜻하게 보살펴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시설에서 같이 사는 손위의 청소년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대규모의 집단 생활이 싫을 때 적응이 어렵다는 것도 제기되었다.

아래의 발화 내용에서, 시설 청소년들은 시설 내 성인들의 행동 및 차림새 규제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공간인 시설이 마치 '제 2의 학교'와 같이 다양한 규칙을 가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심리는 '이모들은 지나치게 단속적(은희)'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하고싶은 일을 못해서라기 보다 보육사들에 의해 자율성을 침해받고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대한 불만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희 : 귀 뚫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은 전혀 그런 게 안 돼요. 제 친구들은 다 연색했어요. 사실 하고싶진 않은데요, 하하 그래도 안 할 거 같은데요, 안 했는데도, 너 머리 연색했지?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지현 : 어떻게 보면 그게(규제하는 것이) 좋잖아요. 애들 나쁘게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양박같은 게 더 짜증나요. 하라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니깐, 존 당당하죠.

한편, 보육사의 신체적·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반응의 결여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가 자신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보육사의 역할이 정서적 측면보다 도구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보육사로부터의 더 많은 정서적 지지가 요구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현 : 이모들한테 혼나면 그 때까지만 해도 가깝혀 있어주고 차츰하고 자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혼낼 때 딱 '뽀아' 같이 욕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 들어요. 장난 아니니까요. 우리가 말 실수 같은 거 하면, 솔직히 우리가 존 그렇지 않아요. 말도 거칠고, 우리도 모르게 잘못 나오고 솔직히 우리한테는 그렇게 기본 나쁜 말 아는데... 그런 거 서로 이해해주면 되는데, 기본 나빠졌다고 완전히 사람을 병신 취급해요. (중략)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 얘기는 친한 이모들한테... 좋은 이모 나쁜 이모 있으니까 좋은 이모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이모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들어주고, 같이 자면서 얘기하고...

은훈 : 지난 번에 누가 딱 울어요. 그래서 욕나가니까 어떤 오빠를 빗자루 가지고 딱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 오빠들은요, 딱 이모들하고 싸워 가지고 갈비뼈 부러진 이모도 있었어요.

지혜 : 어떤 이모는 애 아플 때도 빨한 딱 차요. 내 친구한테요 '누가 그렇게 많이 먹으래? 가서 토하기나 해' 그래요. 권병이라고 그러고. (세탁기에) 피죤 넣으라고 하고 그 빨래, 일 다시켜요. 아파도 말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수형 : 이모가요, 애들한테 신경 쫓 안 써요. 지난 번 이모는요, 애들 깨우고, 숟가락도 다 챙겨줬어요, 지금 이모는요, 깨우고 바른 자요. 생각하면요 지금 이모가 편할 수도 있는데요, 옛날 이모가 진짜 애들한테 관심도 있고 잘 해준 거 같아요. 우리 방 이모한테는 그냥 말 안 하는 것뿐이지, 당장이라도 편한 사람만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시설에서 함께 사는 손위의 청소년들은 정서적 지지의 제공 원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울리기 힘든 상대가 되기도 한다. 지현이의 경우처럼 서로 잘 맞지 않는 청소년들간의 심한 마찰은 시설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령과 경험의 차이가 가져오는 시설 청소년

들간의 위계적 특성으로 인해 손위의 청소년들에 의한 사소한 괴롭힘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시설내의 손위 청소년들은 때때로 '시키면 심부름 해야하고(수형)', '눈치 봐야하는(민석)' 대상이 된다.

지혜 : 어떤 오빠 장난 되게 많이 쳐요. 딱 괜히 때려요. 그래서 개기면은 또 때려요.

민석 : 어떤 형은, 특히 친구이 매일 괴롭혀요. 얼굴 딱 꼬집고요, 잠잘 때 느끼한 짓 하구요. 음, 말도 못해요. 말해도 맨날 괴롭혀요. 미치겠어요. (중략) 나이 많은 형들이 (the 프로그래머) 떳 거 보자고 하면 떳 거 받아죠.

지현 : 옛날에요, 어떤 언니가 있었거든요. 성질 이상하고 맨날 심부름시키고. 그 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금은 가축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많이 싸우고, 많이 맞고.. 같은 방이었어요. 저 양 두 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더 싸우죠. 이 언니 때문에 그 동안 왜 제가 살이 안 찼었는지 알겠어요. 그 때는 보기 싫어서 빵도 잘 안 먹고, 이 언니 가자마자 너무 편해서 살이 딱 찼잖아요.

시설에서 사는 아이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단체 생활을 해야만 하고, 많은 아이들과 성공적으로 어울려야만 한다. 그러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단체 생활에 자신을 맞추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루루 몰려다니는 애들은 보육원 애들밖에 없다(미란)'는 말에서 단체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난다. 시설 청소년들은 집단 속에 개인이 문히게 하는 대규모 활동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좀 더 작은 단위의 활동을 원하고, 개성이 존중받기를 기대한다. 특히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생활하는 C시설의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집단적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여, 시설의 물리적 환경 구성에 따라 이러한 갈등이 증폭됨을 시사하였다.

수형 : 단체생활을 죽였으면 좋겠어요. 방끼리 방도 해 먹고. 조금씩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단체로 하면 더 성격도 나빠질 것 같아요. 방끼리 모여서 가면 되는데, 이동같은 거 단체로 하는 거 싫어요.

지혜 : 언따양 살 때는 그렇게 까뽏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많이 까뽏게 태요. 괜히 딱 능담도 하게 되고, 애들이랑 장난도 많이 치게 되고.

3. 시설 밖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의 특성

1) 제한적인 또래관계의 형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설 내의 또래간에는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개방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시설 외부에서 형성하는 또래관계는 이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매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규모와 특성 및 공유하는 활동의 종류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또래관계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의 양과 질이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의 또래관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의 수가 많고, 공유하는 활동도 다양한 경우에는 민석, 은희, 지현이 3명이 속한다. 학교에서 과거 또는 현재에 같은 반인 친구들 십 여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등·하교, 숙제, 여가 활동을 함께 한다. 이들이 또래로부터 받는 지원은 주로 정서적 측면으로, 고민을 털어놓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사귀는 친구들이 '다양하다'는 것으로 자신의 또래관계 특징을 서술한 이 아이들은 '도움을 주는 친구도 있고,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도 있고(민석)', '소심한 애들도 있지만, 적극적인 애들도 있고(은희)', '자기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활발한 친구, 조용한 친구도 있다(지현)'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현 :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비슷해지구요... 소극적인 애들 사이에도 활발한 애들 끼어 있고, 저같은 애들도 끼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닮아 가는 것 같아요.

한편, 친구들의 수는 많지만, 공유하는 활동이 많지 않거나, 관계가 상호 지원적이지 않은 유형에는 지혜, 수형이, 은효가 포함된다. 가깝다고 묘사한 친구들은 역시 10명 가까이 되지만, 공유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매일 모일뿐, 함께 놀러간 적은 없다(지혜)'거나, '함께 장난치다 선생님께 맞기도 하고, 같이 숙제를 베끼다(수형)', '쉬는 시간에 모여 말뚝박기나 물총싸움하며, 가끔 의견이 안 맞아 싸운다(은효)'고 보고하였다. 또한 친구들이 보기에 자신은 '그냥 잘 노는 친구(수형)', '별로 중요한 친구는 아니고, 곁에 있는 친구 정도(은효)'일 것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친밀한 관계에 바탕을 둔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었다.

은효 : 몇 명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안 사귀려 가지고... 전 그냥 별로 중요한 친구는 아닌데, 곁에 있는 친구?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많이 옆 받아요.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마지막으로, 성훈이, 미란이, 진혁이 3명은 가까운 친구의 수

도 매우 적고, 공유하는 활동도 거의 없었다. 성훈이는 같은 시설의 동급생 남자 아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친구가 없는데, 그 아이마저 '시비를 잘 걸어서 자주 싸운다'고 한다. 미란이도 '친한 친구는 없다'고 하며, 진혁이는 시설 근처에 사는 유일한 친구와 하교만 같이 한다.

미란 : 친구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그런데요... 같이 노는 애들은 있지만, 별로 친하지는 않아요. 적 별로 안 좋아해요.

이들의 친구관계가 갖는 중요한 특성은 자신의 거주 환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를 구분하는 경향이 다. 물론, 자신의 가정 환경과 시설 거주 여부를 알고 있는 친구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고민도 털어놓는다. 자신의 환경에 대해 모르고 있는 친구와의 사이에는 분명한 장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친구가 많은 경우에도 그들과 더욱 개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은희 : 제 친구들 중에는 제가 여기 사는 거 모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냥 가정집에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 사정 잘 아는 애한테는 다 말하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말 안 해요.

지현 : 친하다고 해도,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잘 모르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는 친구들은 몇 안 되는데요. 그 친구들은 다 이해해주고, 잘 놀러오고 그러거든요. 제가요 우리 집 도배할 때 불러요. 그렇게 해주는 애들이 있지만, 아무리 친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남의 얘기는 많이 들어주는데, 제 얘기는 잘 안 할려구 그래요.

또한 시설 청소년들은 자신의 시설 거주 사실에 대해 또래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차별적 행동을 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종류의 직·간접적 경험은 시설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배경을 숨겨야함을 학습시킬 수 있다.

은효 : 여기 들어올 때 쪽팔려요. 애들이요 여기 산다고 놀리고 그러니까요. 4학년때 그랬거든요, 그 때 같은 반 했던 애가 학교에다가 오느 그걸 퍼뜨린 거예요. 그대가지구 오늘 대판 싸우고 왔잖아요. 그래서 개 여기 딱 다 틀어졌어요. 그런 건 진짜 너무 못 참아요. 개한테 애들이 뭐 어쩌냐고 그랬대요. 사실 뭐 어쩌라고...

지현 : 이런 데 살면은 사냥들이 보는 게 쏠 있어서 그렇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학교에서는요 딱

‘도시락은 싸 주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수형 : 지난해에 애들이 나 보육원 산다는 이유밖으로 돌 던졌어요. 양따먹든다니까요.

이와 같이, 가족이 해체되어 시설에 살고 있다는 배경 자체는 시설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제한한다. 그런데, 시설 거주 환경이 갖는 구체적 특성 또한 이들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즉, 부족한 용돈과, 외출 제한, 연락 수단의 결여 등으로 인해 친구들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시설에서의 행동 규제는 엄매임으로 인한 ‘답답함’을 느끼게 할뿐만 아니라, 시설 밖에서 형성하는 또래집단과의 동일시 내지 연결에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불만을 갖게 한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명백한 문제를 갖고있는 미란에게서는 규제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의 직접적인 영향이 발견된다.

미란 : (용돈이 필요하다고) 많이 하는데요, 안 떨어져 주구요, 돈도 안 배겨요. 친구들하고 돈 쓸 일어도 안 해요. 그냥... 그런 (친구들이) 따들려요.

지현 : 한 달에 (용돈) 7천원이었거든요. 다른 애들에 비하면 정말 조금이에요. 애들은 먹을 것도 많이 사먹고 하는데요, 우린 차비밖에 안 배겨요. 놀러갈 때도 마음버스밖에 못 타요.

아이들은 외출과 귀가시간에 대한 통제를 싫어하고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 행동 제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 심리라기보다는 때때로 시설 외부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유로운 활동을 하거나, 자율성을 보장받고 싶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출입에 대한 통제는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도 경험할 수 있지만, 시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시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래들과 다른 차별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미란 : 외출 나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어요. 선생님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잘 안 내보내 줘요. 6시 이후에는요, 뭐 사러 나가는 거 말고는요, 외출 못 해요. 휴일에도 못 나가요.

지현 : 그거 너무 싫어요. 딱 언제까지 들어타야 되고 그런 거. 애들 다 나 공주인 줄 알아요. 집에서 나 진짜 이빠하는 줄 알잖아요. 애들이 우리 집에 전화하면 내가 없잖아요. 팩스로 넘어가니까. 일찍 들어 갔으면서 집에 없구. 맨날 할 말이 없죠.

은훈 : 6시까지 꼭 들어타야 된다는 것도 싫어요. 놀러 못 가요. 친구들은 다 명동 가는데, 저 혼자 못 가고.

또한 시설의 규범에 따름으로 해서 직접적인 만남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연락도 제한을 받는다. 요즘 청소년들은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친구간에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지만, 시설에 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세 시설 모두 휴대전화의 소유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 때는 공중전화를 이용한다. 또한 아이들이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제기한 불만 중 가장 많이 나타난 내용은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9명 모두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원하는 방식과 빈도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연락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음을 호소하였다. 유일하게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된 A시설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요금제와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 실시간 대화창을 모니터에 띄워두고 친구들과 채팅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A시설 아이들은 여전히 컴퓨터 사용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은희 : 우리 핸드폰도 못 써요. 그것도 많이 안돼요. 친구랑 통화도 해야 되고, 솔직히 없으면 챙겨야 해요. 귀걸이, 연색 그런 거 말고. 진짜 핸드폰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은훈 : 친구랑 연락이 안 된다니깐요. 제 친구들 막 다 핸드폰 있는데, 저만 없고... 같이 대화가 안 돼요.

수형 : 편지 확인할려구 돈도 없는데 피씨방 가야돼요.

2) 제 3의 지지원으로서의 후원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설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지원으로는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한 원가족, 대체가족으로서의 시설 구성원들,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또래집단이 있다. 시설 외부의 또래들뿐만 아니라, 결연을 통해 시설과 연결되는 후원자들 역시 제 3의 지지원이 된다. 단 한 명(성훈)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에게는 전부 후원자가 있으며, 각 청소년 당 후원자의 수는 2명에서 7명까지 다양하다. 후원자들은 시설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하고, 때때로 우편물이나 선물을 보내며, 가끔 시설에 찾아와서 같이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인별 후원자뿐만 아니라, 소속 방에 대한 후원자도 있다.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후원자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지만, 이러한 감정은 피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송금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선물이나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한 후원을 더 잘 지각하고 있는 점이 특이했다. 후원자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로 만나고 알게되는 기회를 바라는

등, 후원자와의 좀 더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원하였다.

미갈 : 한 번도 못 봤어요. 선물만 보내 주세요. 제가요, 사탕을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맨날요, 사탕만 이따따 큰 보내주세요. 맨날 좋다고 사탕만 먹고... 다른 분들도 영국 잘 몰나요. 연락은 잘 안 해요.

지현 :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제가 편지 프린트 해서 보내는 게 전부예요. 제 신상명세서 키랑 몸무게 이런 거 쓰고... 어떤 본인지 잘 몰나요. 속직히 만나진 못하고, 돈만 보내긴 하는데요,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별로 후원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라도 한 마디 더 하고 얘기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도 모르는 사잖인데, 나는 맨날 고맙다고 편지 보내고, 그러는 게 형식적인 거 같아요. 뭐 이번 겨울에는 날씨가 어땠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러니까 그 사잖들도 받으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살고 있는 중학생 9명을 사례로 선정하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시설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대인 관계는 시설 환경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몇 가지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부모상은 스스로 기술한 시설 입소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시설 입소 과정에서의 경험이 친척들에 대한 지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강복경과 이정덕(1999)은 사례연구 결과를 통해 시설 청소년이 근원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신혜령(1993)은 시설 청소년들이 부모를 가장 싫어하는 대상으로 지각하였다고 통합적인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시설 입소 배경에 따라서 부모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가족해체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거나, 시설 입소 이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계가 부정적인 경우, 부모에 대해 적대감, 증오심, 원망 등의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인 부모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시설 입소 이후에도 왕래 및 연락을 취하면서 지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차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 부모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끼며 긍정적인 상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 해체 후 시설 입소 과정에서 친척들로부터 방임이나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는

친척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회피 심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시설 청소년의 부모상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유안진·한유진·최나야, 2001)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으로 슬픔과 무가치감, 긍정적인 지각으로 과거의 경험에 대한 회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강복경·이정덕, 1999)와 비교해 볼 때, 더 다양한 감정이 발견되었으며, 피상적인 가족상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지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의의를 갖는다. 입소 후에 부모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과의 재결합 가능성도 매우 낮다(변용찬·이상현, 1998).

따라서, 시설 입소 후에도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소 당시에 부모의 책임과 역할 유지를 명백히 해야 하며, 부모의 접촉과 참여를 의무화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정영순, 2000). 또한 가족과의 생활 경험과 가족에 대한 모델이 부족한 시설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가족생활 설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외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보육사에 대해서는 보살핌 역할에 대한 만족감, 안정적인 대체가족원으로서의 기대 심리 및 규제·폭력·비양육적 태도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동시에 나타난다. 일단, 보육사의 도구적 역할을 통한 수혜적 측면에 대해 만족은 청소년들이 보육사에 대해 일방적인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리고, 시설 청소년들은 보육사에게 자율성의 허용과 정서적인 지지를 원한다. 청소년이 가족구성원과 친밀한 애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할 때 심리적 적응 수준이 가장 높으므로(Lamborn & Steinberg, 1993), 시설 내에서도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훈육해야 한다. 시설 청소년들은 실제적으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보육사가 자신들의 개별적 요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기를 바란다. 시설의 보육사가 자주 바뀔 경우에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애착의 맥락 내에서 복잡한 유형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Bronfenbrenner, 1979)는 지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상의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교대 제도를 마련하여 보육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준인 보육사 대 아동 비율도 현재의 1 : 12에서 1 : 10 이하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면접을 통해 각 시설장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이러한 개선책은 매우 타당하며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개별적인 관심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의 소규모화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노혜련·장정순, 1998; 변용찬·이상현, 1998; 이태수·함철호·이용교, 1997).

셋째, 시설 청소년들은 동거하는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각한다. 특히 손위의 청소년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며,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대

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들은 시설 내외에서 공유하는 경험과 활동이 많아 적응 과정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들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크고 작은 갈등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통해 서로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설 내의 청소년들간에 상호 지지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시설 퇴소 이후까지 친형제자매 못지 않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회 마련이 요망된다.

넷째, 시설 거주 사실과 시설 환경의 구체적 특성은 시설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의 형성을 제한한다. 우선, 이들은 시설 거주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친구 집단을 구분한다. 이는 시설 청소년들이 소속집단에 대한 '낙인'을 두려워하여, 또래관계에서 개방적이지 못한 특징을 갖는다는 보고(박용택, 1994)와 일치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시설 거주 사실에 따른 단순한 낙인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또래와의 경험이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청소년기 우정의 중요한 특징이 친구간의 자기-노출(Buhrmester, 1996; Parker & Gottman, 1989)임을 감안할 때, 시설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설 청소년들은 시설 환경의 특성에 따르는 용돈 부족, 외출 제한, 연락 수단의 결여 등으로 인해 친구들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한다. 친구들과 마음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차별화되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가 나타난다. 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선행 연구에서도 용돈, 외출의 자유 등의 항목에서 불만족이 보고된 바 있다(노혜련·장정순, 1998). 이러한 영역에서의 불만족은 친구관계의 형성 및 유지와 긴밀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시설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들은 가장 긴밀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면에서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또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시설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설 청소년들은 외부로부터의 지지원인 후원자에 대해 고마움의 감정을 보이지만, 피상적인 수준의 관계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한다. 후원자와 직접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원한다. 신혜령(1993)의 연구에서도 시설 청소년들이 '답고싶은 대상'으로 후원자를 선호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후원자와 시설 청소년이 서로를 알고 정서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지속적 관계가 형성된다면 좋을 것이다. 시설 청소년들에게는 가족을 대체해줄 수 있을만한 대상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는 대인 관계는 시설 환경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시설 입소 배경과 과정, 입소 후의 연계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이 달라지고, 시설에서의 집단생활은 시설 구성원에 대한 만족감, 기대

감, 실망감, 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시설 밖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 또한 시설 거주로 인해 연결 또는 제한된다.

'솔직히 가정집에 사는 웬만한 애들보다, 더 많이 혜택받고 살거든요'라는 지현이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상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심리적 환경에서의 결핍으로 인한 불만은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또래의 어느 청소년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 시설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사회적·심리적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성장기에 겪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가 결핍된 이들에게 보상적인 사회적 지원 체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연구는 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마련과 후속 연구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설 청소년들의 대인 관계의 특성과 그에 대한 지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일반화의 구애를 받지 않고도 탐색적 수준에서 벗어나는 발견을 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시설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의 제공을 통해 프로그램의 실시와 행정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한점도 가진다. 초기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추어 중학생들로 사례를 한정하였으나, 아동양육시설 내에서 오랜 기간동안 생활한 고등학생이나 만18세 이상의 거주 연장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연구의 폭을 넓혀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집 수 일 : 2002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4월 11일

【참 고 문 헌】

강복정·이정덕(1999). 시설청소년의 가족상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3), 15-26.
 권재용·김종영(1999). 육아시설의 생활공간 구성 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4), 63-72.
 김용석·김현옥·이상현·오정수·이연호·박광준(1995). 아동복지 수용시설 운영평가 및 개선 방안.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용(1994).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보호의 개선방향, *한국아동복지학* 2, 61-87.
 노혜련·장정순(1998). 육아시설 아동의 생활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 65-92.
 신혜령(1993). 시설아동의 동일시대상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 육아시설의 청소년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논문집* 16, 207-243.
 박용택(1994). 시설아동의 양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아

- 동복지학 2, 205-225.
- 박태영(1991). 육아시설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7, 70-85.
- 변미희(1999). 육아시설 퇴소아동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용찬·이상영·이상현(1996).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이상현(1998). 아동복지 수용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0). 아동복지시설편람. 보건복지부편.
- 양숙미(1993). 시설청소년에 대한 집단사회사업 실천 개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민하영(2000). 학령기 및 청소년기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 *아동학회지* 22(2), 133-147.
- 유안진·한유진·최나야(2001). 문장완성검사를 통한 시설 청소년의 자아 및 환경 지각. *한국아동복지학*, 12, 42-76.
- 이명목(1991). 육아시설 퇴소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 당사자의 의식과 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7, 175-201.
- 이배근(1993).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46-57.
- 이태수·함철호·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연구. 서울 : 인간과 복지.
- 장인협(1988). 시설아동의 건전 육성. *아동복지* 창간호.
- 장인협(1993). 한국 아동복지의 미래.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240-251.
- 정영순(2000). 시설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 촉구방안. *한국아동복지학* 9, 247-262.
- 조용환(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 연구* 2(2), 27-63.
- 최영신(1999). 질적자료수집: 생애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2), 1-22.
- Adler, T. & Furman, W.(1988). A model for children's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 dysfunction. In S. W.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London: Wiley. 211-228
- Berg, B. L.(2001).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4th ed. MA: Allyn & Bacon.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Buhrmester, D.(1996). Need fulfill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he developmental contexts of friendship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158-185.
- Chisholm, K.(1988). A three year follow-up of attachment and indiscriminate friendliness in children adopted from Romanian orphanages. *Child Development* 69, 1092-1106.
-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CA: Sage.
- DeAngelis, T.(1997). When children don't bond with parents. *Monitor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8(6), 10-12.
- Finkelstein, N. W. & Ramey, C. T.(1977). Learning to control the environ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48, 806-819.
- Fisher, L., Ames, E. W., Chisholm, K., & Savoie, L.(1997). Problems reported by parents of Romanian orphans adopted to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67-82.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Furman, W. & Buhrmester, D.(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and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Hinde, R. A.(1987). *Individuals, relationships and cultur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nde, R. A.(1995). A suggested structure for a science of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2, 1-15.
- Hodges, J. & Tizard, B.(1989). IQ and behavioral adjustment of ex-institution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 53-75.
- Hutchinson, R. L., Tess, D. E., Gleckman, A. D., & Spence, W. C.(1992).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Resilient or risk?, *Adolescence* 27(106), 339-356.
- Lamborn, S. D. & Steinberg, L.(1993). Emotional autonomy redux: Revising Ryan and Lynch. *Child Development* 64, 483-499.
- Morison, S. J. & Ellwood, A. (2000). Resiliency in the aftermath of deprivation: A second look at the development of Romanian orphanag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46(4), 717-743.
- Parker, J. G. & Gottman, J. M.(1989).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relational context: Friendship interaction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 in child development*. (pp. 95-131) NY: Wiley.
- Shaffer, D. R.(2000).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In D. R. Shaffer.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135-162.
- Stewart, D. W. & Shamdasani, P. M.(1990). *Focus groups: Theory and practice*. Newbury Park, CA: Sage.
- Warger, C. L. & Klerman, D.(1986). Developing positive self-concepts in institutionalized children with severe behavior disorders, *Child Welfare* 2, 165-171.
- Youniss, J. & Smollar, J.(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